

# 건축개혁을 위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자

Let's make a Common Understanding Opportunity  
for the shake of the Architectural Reform

李鍾寬/본지 편찬위원장  
by Lee, Chong-Kwan

한국건축의 역사상 올해만큼 격동의 시기는 없을 것이다.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내부적 갈등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건축관련법의 개정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특히 일부 건축인들의 대 사회자정 선언과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국민제안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시각부터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 그들의 대다수는 기존의 제도와 법 가운데서 건축창작과 교육에 종사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세대에 대한 대안문화 형성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보수와 혁신세력의 갈등이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계급적 이해나 그로부터 연유된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서 안된다. 이것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의 동시적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 사회에 내재된 사회문제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출현은 현 제도권에 대한 대항적 속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현 제도권 또는 기득세력과 정신적으로 안정된 유대관계를 맺어오지 못했고 정당한 대화의 장이나 토론통로를 갖지 못한데서 나오는 정치적 속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서로간의 인식차이를 넓혀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존 제도권의 태도는 소극적이며, 무관심하기조차한 인상이다. 이로 인해 이들 세력이 가질 수 있는 급진적 사고와 무정부주의적인 의식성향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현 상황에 대한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인식의 차이가 양자간의 갈등이거나 갈등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인식의 차이가 양자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중간과정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인식의 차이나 갈등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으로 동시에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은 이들의 건전한 자탄과 자책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며, 그들의 정신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끄집어 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용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몇년후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2천년대의 시간속으로 흡인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 건축계는 이런 세기적 도전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천년대를 맞이할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훌륭히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변혁의 물결속에 휩쓸리며, 자기부상과 자기소모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회의 제도개혁으로 직업적 자긍심이

“

이 나라 건축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공동인식의 장을 통해 우리의 처지와 여건, 자세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진정 건축의 본질이 중시된 건축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 상식과 순리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때 21세기는 진정 건축이 문화로서 우리네 삶속에 살아넘치고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다.

”

넘쳐나고 사회와 사람간의 관계를 신뢰롭게 다질 수 있는 우정의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제도를 재구성하거나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의 건축인들이 자기실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건축, 사랑 그리고 우정에 관계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자기표현, 다양한 개인가치에 대한 선택과 허용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한 시대의 문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주체집단과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문화를 공유하는 주체집단이란 건전한 가치관과 생산적인 활동규범에 대한 공동인식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바로 이 공동인식의 결여 때문에 우리가 건전하고 참다운 건축문화를 구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혼돈의 어둠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건축인의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고 키워나가야 하겠다.

이같은 기초위에 가칭 “21세기를 준비하는 건축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

건축사협회가 주도하며 범건축계가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사제도,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교육, 건축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입법, 제도화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다.

올바른 인식의 바탕이 없는 제도는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시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청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기운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의 독주와 독점의 시대는 이미 멀어져가고 있다.

대화와 절충과 타협에 의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나라 건축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공동인식의 장을 통해 우리의 처지와 여건, 자세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진정 건축의 본질이 중시된 건축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 상식과 순리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때 21세기는 진정 건축이 문화로서 우리네 삶속에 살아넘치고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다.